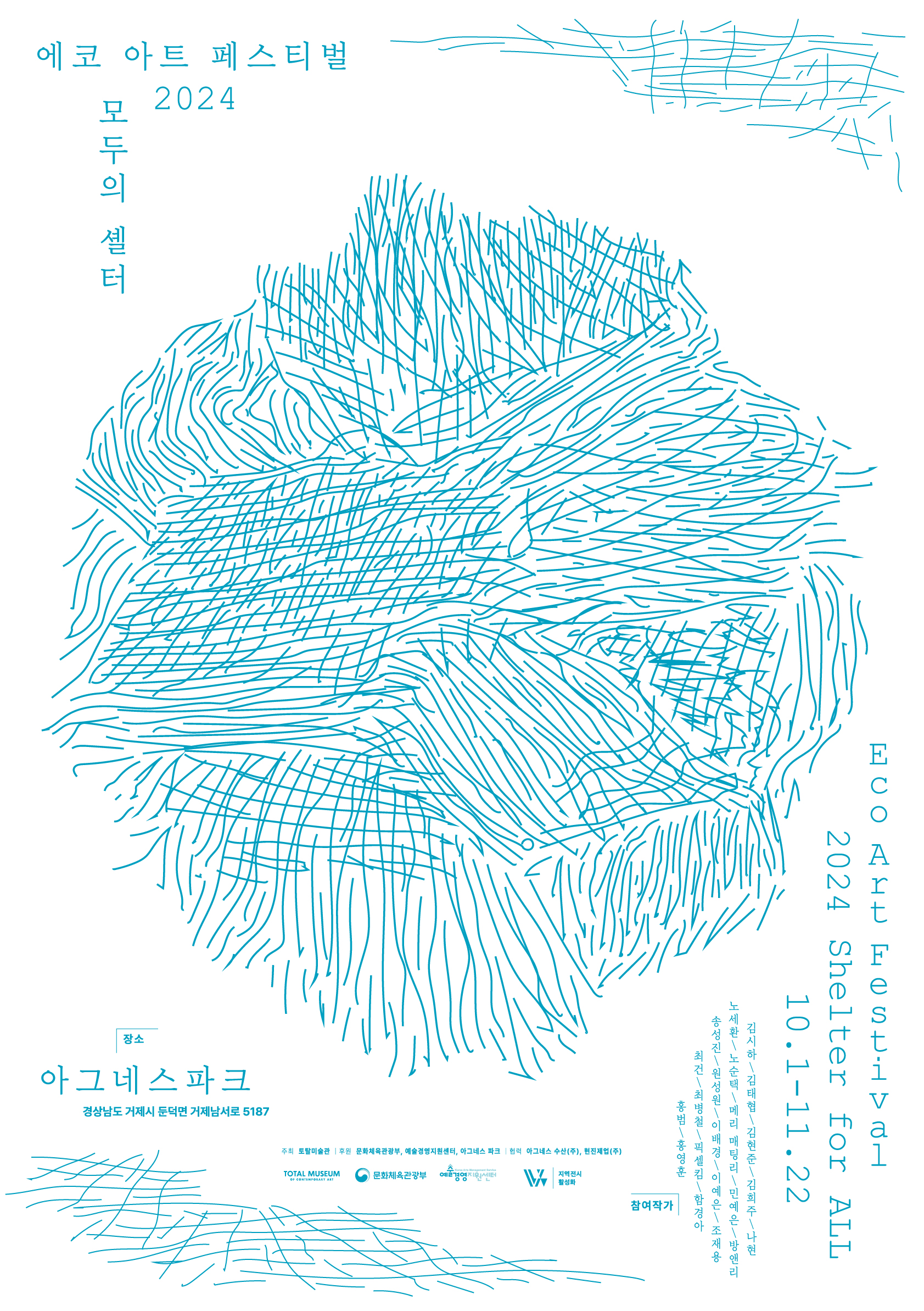
|  |
| --- |
| **Eco Art Festival: 모두의 셸터** |

**1. 개요**

* **행사명** Eco Art Festival: 모두의 셸터
* **행사기간** 2024년 10월 1일(화) ~ 11월 22일(금), 총 46일 매주 월요일 휴관
* **행사장소** 아그네스 파크(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제남서로 5187)
* **참여작가** 김시하, 김태협, 김희주, 김현준, 나현, 노세환, 노순택, 메리 매팅리, 민예은, 방앤리, 송성진, 원성원, 이배경, 이예은, 조재용, 최건, 최병철, 픽셀킴, 함경아, 홍범, 홍영훈(21명)
* **행사 주제** 지역 사회와 함께 도시-환경-예술을 경유하여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에 대해 고찰하는 에코 아트 페스티벌
* **주최** 토탈미술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아그네스 파크  
  **협력** 아그네스 수산(주) 현진제업(주)
* **홈페이지** 토탈미술관 http://totalmuseum.org/ 아그네스 파크 https://agnespark.com/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helter\_\_for\_\_all/



* **서로 연결된 생태계의 가치를 일깨우는 《모두의 셸터》, 장애인 예술가의 참여로 다양성 확대하고 접근성 높이다**
* **서울의 토탈미술관과 거제의 아그네스 파크가 함께 만드는 예술 축제 《모두의 셸터》,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재조명 하다.**
* **거제에서 만나는 미래형 생태 예술 축제, 《Eco Art Festival: 모두의 셸터》개최**

**2. 축제 내용**

2024년 가을, 토탈미술관은 2124년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 지구를 상상하며 거제 아그네스 파크에 특별한 셸터를 연다. 《Eco Art Festival: 모두의 셸터》는 서울 토탈미술관과 거제 아그네스 파크가 협력하여 개최한 예술 축제로, 예술가와 지역 사회가 도시, 환경 그리고 예술을 경유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다.

축제가 열리는 아그네스 파크는 옛 수산물 가공공장을 개조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곳은 견내량 바닷가를 옆에 두고 생태 정원과 조각 공원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전시, 클래식 콘서트, 미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신거제대교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재생공간으로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아그네스 파크는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공간 접근성을 높였으며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이용해 모든 전시장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토탈미술관은 “모두의 미술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랜 시간 문화예술계 내의 다양성 확대와 접근성 높이기에 노력해 왔다. 이번 축제 역시 장애인 예술가가 전시에 참여하여 예술을 매개로 다층적인 감각의 확장을 이룬다. 최병철, 픽셀킴, 홍영훈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바다와 환경을 주제로 한 신작을 선보였다. 최병철의 <해수욕장>과 <산호> 시리즈는 해양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인지하게 하는 색감과 자유로운 붓질을 보여주며, 홍영훈의 <묵납자루>, <동자개빠가사리> 등 해양 생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생명의 다양성을 시각화했다. 픽셀킴의 <푸른감각 수학드로잉> 시리즈는 재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의 추상성을 수학적 기하학으로 표현했다. 기획팀은 Chat GPT가 세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여,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구로서 장애예술을 소개했다.

《Eco Art Festival: 모두의 셸터》는 장애와 비장애,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넘어 공생을 위한 감각과 상상을 공유하는 장이다. 현대미술 전시뿐만 아니라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국민대학교 ADM 랩의 로컬 세미나, 자연미술 워크숍 등 지역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대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으며, 관객은 AI와 AR 기술을 체험하며 인간과 자연이 협력하는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 축제는 현대미술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터전과 공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

**3. 부대 프로그램**\*부대 프로그램의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토탈미술관, 아그네스 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셸터 시네마: <돌봄: 일상의 생태를 다룬 세 편의 영화>**일정: 10월 12일, 19일, 26일, 11월 2일, 9일, 16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셸터 랩실 B (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소개: 셸터 시네마는 우리에게 익숙한 블록버스터형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와 조금 다른 일상과 생태를 주제로 한 영화를 소개한다. 외딴 섬에서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학자, 자국을 여행하며 비극적인 역사와 가족의 이야기를 교차한 영화감독, 야생 꿀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유럽의 마지막 여성 야생 양봉가가 새로운 이웃을 만나면서 변화하는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① 허니랜드(Honeyland), 감독 루보미르 스테파노브, 타마라 코데브스카(Tamara Kotevska & Ljubomir Stefanov)  
러닝타임 85분, 국가 마케도니아, 2019년  
  
<허니랜드>는 유럽의 마지막 여성 야생 양봉가 하티제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하티제는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벌을 기르고 꿀을 채취하면서 자연과의 균형을 중시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고립된 산악 지역에 유목민 가족이 유입되면서 하티제가 지켜온 규칙에 균열이 생기고, 대량의 꿀을 채취하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다. 하티제는 벌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과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영화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의 섬세함을 포착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전통적 삶의 방식을 엿보며 한 명의 여성이 가진 뛰어난 회복력을 주목한다

② 뉴클리어 패밀리( Nuclear Family) 감독 에린 윌커슨, 트래비스 윌커슨(Travis Wilkerson & Erin Wilkerson)  
러닝타임 96분, 국가 미국, 싱가포르, 2021년  
  
<뉴클리어 패밀리>는 감독과 그의 가족들이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하며 핵 산업의 유산과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영화는 과거 미국이 주도한 핵 실험과 원자력 산업이 지역 공동체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핵의 위협을 조명한다. 감독은 여행길에 마주친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통해 핵무기의 실험과 폐기가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드러낸다.   
여행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와 핵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이 교차하며, 핵무기와 핵 산업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③ 고독의 지리학(Geographies of solitude), 감독 재클린 밀스(Jacquelyn Mills)  
러닝타임 103분, 국가 캐나다, 2022년  
  
 <고독의 지리학>은 캐나다 동부의 외딴섬 사블 아일랜드(Sable Island)에서 40여 년간 홀로 살아온 환경운동가이자 자연주의 예술가인 조이 루커스(Zoe Lucas)의 삶과 그가 연구한 자연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사블 아일랜드는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지만, 조이는 이곳의 독특한 생태계를 연구하고, 섬을 지키는 역할을 자처한다. 영화는 조이가 섬에서 수행한 다양한 활동들을 따라가며, 그가 그곳의 동식물과 기후, 그리고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들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2) 셸터 세미나: <로컬 세미나: 셸터로 가는 길>**참여자: 국민대학교 ADM랩(Area Design Management Lab)  
일정: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셸터 랩실 B (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소개: 축제에 참여한 예술가, 기획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지역 사회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국민대학교 ADM랩(Area Design Management Lab, 지역 디자인 경영)이 참여한다. ADM랩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지역적 문제와 도시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이들은 디자인-경영-컨텐츠-건축(도시계획, 재생)등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특히 로컬필드트립을 통해 경험디자인적 관점에서 현장의 문화와 경제현황, 네트워크를 탐구한다.   
  
**3)셸터 렉쳐: 지역과 예술**소개: 예술이 지역 사회와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중심으로 열리는 강연 시리즈 이다. 다양한 예술적 실천과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영향을 일으킨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며, 예술이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바틱 스토리> 강의자: 토탈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신보슬  
일정: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셸터 랩실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정원과 예술>  
강의자: 2013 순천만 국가정원 예술총감독 정정수  
일정: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셸터 랩실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4)셸터 토크**소개: “모두의 셸터”를 만든 이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축제의 기획자와 예술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와 관객들이 모여 생태와 예술, 지역 공동체와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역 예술 플랫폼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또한, 셸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챕터 1: 셸터 구축하기>  
참여자: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김민선  
일정: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셸터 랩실 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챕터 2: 셸터의 구성원들>  
참여자: 참여 작가  
일정: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셸터 랩실 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챕터 3: 셸터 확장하기>  
참여자: 문화공간;모음 대표 박순영  
일정: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셸터 랩실 B (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5)셸터 푸드 랩: <세 마리 개구리 식당>**  
일정: (추후 공지)  
장소: 셸터 랩실 A (아그네스 파크 본관 1층)  
소개: 예술과 요리를 중심으로 예술가, 기획자, 관객들이 모여 새로운 네트워킹을 시도한다.  
화가, 음악가, 물리학자, 해부학자 등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한때 ‘요리사’이기도 했다. 그는 요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산드로 보티첼리와 함께 아르노 강변에서 “세 마리 개구리 식당”을 운영했다. 시대를 앞서간 그의 감각이 요리에도 적용됐고 그는 ‘먹을 수 있는 끈(스파고 만지 아 빌레라)’과 (오늘날 스파게티), 이 끈을 먹기 위해 삼지 포크를 개발하기도 했다. 토탈미술관은 2018년부터 이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받아 예술가와 셰프가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고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감각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잠시 문을 닫았던 <세 마리 개구리 식당>이 모두의 셸터에서 다시 문을 연다.   
  
**6)셸터 북클럽: 『찬란한 멸종』함께 읽기**  
일정: 10월 27일 일요일 오전 11시  
장소: 셸터 랩실 C(아그네스 파크 본관 3층)  
소개: <모두의 셸터>가 펼쳐진 아그네스 파크 이곳 저곳에에서 각자 편한 자리를 찾아 독서를 한 후 한데 모여 인상 깊었던 글귀나 생태에 대한 소회를 부담없이 나누는 북클럽이다. 함께 읽을 도서는   
이정모 저자의 『찬란한 멸종』이며, 인류가 멸망한 2150년 인공지능이 화자로 등장하여 멸종에 대한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인류가 침묵하면서 비로소 범고래, 산호, 삼엽충 등 지구 생명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 그동안 인간이 바라봤던 모든 관점을 뒤집는다.

**7)셸터 워크숍:**소개: 셸터 워크숍은 축제의 주제인 ‘생태-예술-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거제시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도슨트 교육을 통해 현대 예술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신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자연미술 워크숍에서는 아그네스 파크에서 채집한 재료를 활용해 축제의 참여 작가와 창의적 작업을 함께 한다. 이 워크숍은 예술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창의적 경험을 제공한다.

<shelter.home.nest>  
진행자: 김시하   
참여자: 거제시 주민  
일정: 10월27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셸터 랩실 A(아그네스 파크 본관 1층)  
<셸터의 도슨트>  
진행자: 정지윤  
참여자: 만 15세 이상 거제시 청소년  
일정: 11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장소: 셸터 랩실 A(아그네스 파크 본관 1층)  
  
  
**8)셸터 하모니:**공연: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일정: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셸터 랩실 B(아그네스 파크 본관 2층)  
소개: 창단 20주년을 맞은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은 거제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깊은 감동을 전해왔다. 합창단은 지구를 향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바다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은 창작곡을 발표해 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지속 가능한 셸터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희망하며 노래한다.

**4. 공간 운영  
  
 1) 장소 소개**

아그네스 파크는 1975년부터 거제도에 자리한 아그네스 수산이 옛 수산물 가공 공장을 개조하여 구축되었다. 이곳은 지역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전시, 클래식 콘서트, 미술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많은 관객들이 찾고있다. 공원은 견내량 바닷가를 옆에 두고 지역의 자생식물이 군락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 정원과 조각 공원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곳이다.

|  |  |
| --- | --- |
| **a. 야외 전시 공간** | |
|  |  |
|  |  |
| **b. 실내 전시 공간** | |
|  |  |
|  |  |

**2) SF적 상상력을 구현한 탐험형 전시: 가상의 연구소 ‘셸터’**

축제에 몰입감을 더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Chat GPT와 협력하여 쓰여진 SF 배경의 스토리텔링이 진행된다. 축제의 거점인 아그네스 파크는 2124년, 극심한 기후 변화로 대부분의 육지가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여전히 생명히 넘치는 바다를 품은 거제도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든 자급자족형 생태계 ‘모두의 셸터’로 거듭난다. 이 셸터의 관리 시스템인 아틀란티스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공동체를 위해 셸터 내의 생명체들에게 협력을 제안하였고, 생명체들은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며 공존의 방법을 모색한다. 축제는 이러한 협력의 과정을 예술로 표현하여 모든 존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 또한 AR로 원소 모으기, AI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셸터 탐험하기 등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모두에세 혁신적인 셸터의 일원이 되기를 제안한다.

**5. 주요 작가 및 작품 소개**

|  |  |
| --- | --- |
|  | 메리 매팅리(Marry Mattingly)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식량과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조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가이다. 2016년부터 시작한 수상 조각 <Swale>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로서 매립된 바지선 위에 떠다니는 ‘식량’ 숲을 조성했다. 작가는 <Swale>에서 수확한 신선한 식량을 무료로 나누었으며, 자본주의와 이익관계를 넘어선 독자적인 유통경로를 열기도 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생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작가는 계속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다학제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
|  | 김시하는 양분화된 세계관 사이, 경계에 주목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괴리, 불안감 같은 심리적 요소를 장르 구분 없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감각으로 재구성한 일종의 무대-시적 풍경(숲)을 만든다. <불의 시/고스트 가든 ver 2>는 불이 휩쓸고 지나간 후의 디아스포라적 풍경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검게 타버린 나무와 숯을 점멸하는 조명이 비추며 재난 풍경처럼 치환하여 숲이 소멸되는 위기감을 전달한다. |
|  | 김태협은 사회 제도와 대인 관계를 개인의 미시적인 욕망들과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타자화된 주체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다룬다. 작가의 <Way Points>연작은 분절된 풍경과 풍경을 연결하여 인공-자연-사회의 새로운 연결 라인을 구성한다. |
|  | 김현준은 국내 해안가에 떠밀려 온 버려진 사물들을 수집하고,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만들어낸 문제를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개인의 소비부터 시작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해양 생태계의 변화 같은 문제로 연결되는 과정을 시각화 한다. <숨 덩어리>는 인간사회가 영역을 확장하려는 욕망과 이것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작가는 직접 호흡 장치 없이 오직 자신의 숨에 의지하여 바닷속을 오르내리며 바다로 밀려들어온 시멘트 덩어리를 채취하고 조각한다. 작품은 작가의 행위를 기록한 영상과, 시멘트 조각으로 전시되는데, 자연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함과 한계, 그리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보여준다. |
|  | 노순택은 다큐멘터리 보도사진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단순히 이념적 대립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그는 일상적인 풍경에 감춰진 현실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며, 사회적 이슈와 시대적 흐름을 풍경 속에 녹여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무겁고 날카로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유머와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아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동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동물과 자연을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존재로 보기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위치를 갖는 존재로 해석한다. 동물들은 때로는 국가의 이념적 도구나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되며, 인간 사회에서 타자화를 겪고 박제화되어 권력과 통치의 흔적을 드러낸다. |
|  |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 방앤리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예술가의 철학이자 예술 실천, 기후행동을 보여주는 액트제로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액트 제로: 노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지속 가능한 재료, 친환경 에너지, 지역의 생태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연으로 회귀에 초점을 둔 일련의 창의적인 탄소중립 예술 활동과 실천을 기록한 작품이다. |
|  | 홍범은 시공간의 실체가 직조한 기억의 순간들에서 생성된 감각이나 정서에 몰입하여 그만의 세계상을 구축한다. 그의 작품은 특정 공간을 재현하기보다 기억을 픽처링(picturing)하여 물리적 현상과 연결하고 실재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초현실적인 표현으로 등장한다. |
|  | 원성원은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한 수백 개의 사진 이미지들을 정교하게 콜라주 하며 그림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로 탈바꿈시킨다. 작가만의 내러티브가 숨어있는 각 작품은 대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집단을 묘사한다. 실재에 근거한 내러티브와 섬세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가의 독특한 시각을 통해 구성된 작품은 사회에 속한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를 위트 있게 시각화한다. |
|  | 이배경은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는 감각의 확산을 위해 영상과 인터렉티브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몸, 시간, 공간 등에 대한 경험을 다르게 감각함으로써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그가 전개하는 다양한 미디어 실험들은 기술과 관객의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소통 체계의 개발로 이어진다. |
|  | 조재용은 자연과 가까이 살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고도화되는 도시에서 점점 사라지는 산의 모습을 기록한다. 이는 도시 풍경의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도시 건축물로 인해 왜곡되고 분활되는 자연 경관을 만나게 한다. <마주할 전경> 연작은 아크릴에 입체 콜라주를 인쇄함으로써 정면에서는 익숙하고 온전한 도시의 모습이지만, 각도에 따라 도시 속 자연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어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게 한다. |
|  | 이예은은 사진을 매개로 개인, 집단, 사회 현상이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성에 주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타인, 사회 현상과 관계맺기를 시도하고 '쌓기', '매달리기', '걷기' 등을 수행함으로써 작가의 몸이 경험한 비물질적인 관계성을 시각화하고 사진으로 기록한다. |
|  | 최건은 다양한 사회 이슈를 분석하는 리서치를 거쳐 그래피티 작업을 진행한다.리서치는 벽돌, 시멘트, 무너진 벽, 흙 뭉치 등 다양한 재료의 바탕으로 전환되고 그 위로 추상과 구상을 오가는 작가의 그래피티가 그려진다. |
|  | 최병철은 발달장애인 예술가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색들을 활용해 정물화를 그린다. 그의 정물화는 색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기존의 정물화와 다르게 모든 요소가 변형가능한 유연성을 가진다. 색 위로, 대상의 형태, 배경, 그림자 등이 차례로 그려지면서 작가만의 개성이 짙게 묻어나는 정물화가 완성된다. |
|  | 스스로를 ‘픽셀킴’이라 부르는 김현우 작가는 ‘픽셀’을 기본조형 삼아 자신의 우주를 그린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들, 겪었던 삶의 순간들을 픽셀의 이미지로 재구성하는데, 특유의 직관적이고 과감한 드로잉으로 시각적 리듬감을 가진 구조와 색채의 변주를 펼쳐낸다. 최근에는 픽셀드로잉의 다양한 재료 실험과 동시에 입체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수학공식이나 직접 작사, 작곡한 악보, 친구들과 선생님의 이름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는 등의 문서화 작업을 학창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오고 아있다. |
|  | 홍영훈은 발달장애인 예술가로 동물을 주제로 하는 회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는 섬세한 묘사와 뛰어난 관찰력으로 생동감 있는 그의 ‘동물 친구들’을 그린다. 그의 선은 거리의 강아지와 고양이, 자연의 호랑이와 늑대, 고래 모두를 포용한다. |
|  | 함경아는 개인의 삶에 사회적 구조와 현상이 개입되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탐구하여 동시대 미술로 감각화 한다. 작가가 사적 기억, 미시적 역사에서 찾은 실마리는 종교와 자본, 국제 정세 등 거대한 힘과의 접촉으로 이어진다. <허니 바나나>는 고가의 이국적 열대 과일이었던 바나나에 대한 유년기 기억에서 출발하여, 현재 제주, 필리핀, 동유럽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과일 이상의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 바나나의 역사를 쫓는다. 작품에서는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의 현실에서 겪는 상대적 상실감을 이야기 하며, 바나나에 가려진 개개인의 삶을 비추고, 바나나를 매개로 시간과 공간이 재편집 되면서 존재가 드러난 거대자본이 가진 힘과의 접촉 또한 시도된다 |
|  | 송성진의 <Unwelcome>은 <1평조차>를 잇는 설치 작품으로, 바다의 한편에서 인간의 불안정한 삶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작가는 난민촌의 임시 거처와 철거촌의 이주민, 한 평의 쉼조차 갖기 힘든 삶들을 살피며 한 평짜리 나무집을 지었다. 그리고 대부도, 부산, 여수, 제주 그리고 거제 등지의 바다에 나무집을 설치하며, 인간 사회와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중첩해 왔다. 이 나무집은 어디에서도 정착을 허락받지 못하고, 여러 바다의 파도를 맞으며 변형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환영받지 못한 흔적들은 나무집에 고스란히 남아, 인간 사회와 자연을 떠돌며 임시로 머무는 인간 생존의 불안정함을 반영한다.  지구 종말을 가정하는 이번 전시에서 <Unwelcome>은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이 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적응하고 생존해야 하는 현실을 일깨운다. 관객은 전시 기간동안 바다물에 삭아 점차 원형을 잃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자비한 자연의 힘과 인간의 임시적 대응이 반복되는 모습을 투영하며, 피난처가 안전한 공간이 아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강요받는 불완전한 곳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welcome>은 환영받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파도를 맞으며 매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

|  |  |
| --- | --- |
|  | 김희주의 <진동의 대지: 수분층(Ground of Vibration: Aqueous Layer)>는 진동을 매개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간의 소통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이 작업은 기계를 통해 발생하는 진동을 인간, 동물, 식물, 자연, 그리고 로봇과 같은 비인간 존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언어로 제시한다. 작품은 눈의 수분층을 주제로 한 리딩(reading)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되며, 관객은 작품에 등을 대고 진동 모터를 통해 주변 소리와 환경의 파장을 감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진동을 통해 다른 존재들과 감각적으로 연결되며, 기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모두의 셸터》에서 <진동 대지: 수분층>은 관객으로 하여금 기후 위기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다른 생명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셸터라는 공간에서,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파괴를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을 통해 자연과 새로운 방식으로 교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게 된다.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며, 셸터라는 종말적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